

## 청소년 소비자의 자아개념과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평가 및 경험\*

### The Self Concept of Adolescent Consumers and the Evaluation and Experience of Adolescent Entry into Harmful Place\*

인하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  
교 수 이 은 희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교수 남 수 정

Dept. of Consumer, Child, & Consumer Studies, Inha Univ.

*Professor : Eun Hee Lee*

Research Institution for Human Life Sciences, In Ha Unniversity

*Research Fellow : Su Jung Nam*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ubcategories of the self concept of adolescent consumers, and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is self concept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evaluation and experience of adolescent entry into harmful places.

The adolescent group was divided into 4 subgroups: (group I with negative evaluation and without entry experience, group II with negative evaluation but with experience, group III with positive evaluation but without experience, and group IV with positive evaluation and with experience). The differ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self concept between these subgroups were insp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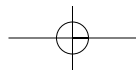
First, the self concept of the adolescent consumer consists of body self, social self, achievement self, scholarship self and family self. Among these self concepts, scholarship self was the highest, and family self was the lowest.

Second, from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demographic ele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inspect the factors influencing self concept, sex, school year, living with parents, and economic statu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in case of entry evaluation, singing room was evaluated most positively among 10 places with a score of 4.20 and pub/drunkenness was evaluated most negatively. In case of entry experience, singing room was the most

Corresponding Author: Su Jung Nam, Major in Family Management and Consumer Studies, Syungkyunkwan University, MyungRun-dong 3-ka, Jongro-ku, Seoul 110-745, Korea Tel: 82-2-760-0507 Fax: 82-2-760-0507 E-mail: bluechrise@freechal.com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frequently experienced place and discotheque was the least.

Fourth, with respec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s of self concept, the influencing factors on entry evaluation were sex, school year, social self, and family self,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entry experience were sex, school year, living with parents, social self, and family self.

Finally,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elf concept according to entry evaluation and experience, revealed the distinctive variables among the 10 harmful places to be sex, school year, living with parents, body self, social self, achievement self, scholarship self, and family self.

**주제어(Key Words):** 청소년 소비자(adolescent consumers), 자아개념(Self-concept), 유해업소(harmful places)

## 1. 문제제기

건전한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능동적 인간이 되게 하며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경험과 자기 표현력을 가진 개성 있는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이룬 청소년, 창조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선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한상철, 1998).

그러나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준비로 여가시간도 없고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막상 여가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지 지식도 없는 상태이며,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김석훈, 1998). 따라서 청소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오락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 상당수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자아개념의 경우 Wells(1978)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탈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접근방식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의 변수를 강조하는 설명이나 구조적 환경에 대한 설명의 중간 수준에서 양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특징은 자아를 끊임없이 계발하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청소년문화를 창조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가능성을 가짐과 동시에 비사회적, 비타협적, 반사회적 행동을 낳게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자아개념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자아개념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위한 자신의 속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Shavelson & Bolus, 1982) 청소년 시기의 많은 행동들이 이 자아개념의 영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아개념이 잘 발달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 시기 이후에 성역할, 권위, 존재가치 등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자아탐색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경우 비행 또는 범죄청소년에게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의 출입과 자아개념 관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변화는 청소년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혼란을 주고 때로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을 통해 자기성장을 꾀하고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여 일탈적인 하위문화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 중 특히 청소년이 출입하는 유해업소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평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차원의 설명과 구조적 환경적 설명의 중간수준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자아개념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소비자들의 유해업소 출입과 출입예방에 관한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둘째, 유해업소 출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로 출입평가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유해업소에 대한 태도형성과 출입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오락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종의 여가시간의 활용장소인 유해업소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유해업소출입과 자아개념의 관계

#### 1) 자아개념의 개념

청소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기제라는 Reckless(1957)의 주장과 함께, Cohen(1955)과 Lemert(1951) 등의 이론에서 자아개념이 비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이래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Wells(1978)는 일탈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문제차원에서 설명하는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분석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수준의 변인으로 '자아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구조적 상호작용론 접근방법', '사회화-통제 접근방식', '낙인론적 접근방식' 등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지적한 Cohen(1956), Reckless(1956), Lemert(1951)의 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조적 상호작용론 접근방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Cohen(199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비행은 집단적 현상으로, 실추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로 보고 있다. 사회(주로 학교)라는 장에서 지위회복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을 경험하면서 실추된 지위와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비행행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실추된 지위를 얻게 되며 자아개념이 고양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지위문제와 정체성 유지의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행을 파악했으며, 사회적 좌절에서 기인하는 지위좌절에 대한 체계적인 반응으로서 개인의 비행과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고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자아개념이라는 변인이 사회적 사건(학교의 불평등한 현실)과 개인적 사건(비행)을 연결하는 요소로 보고있다.

한편 사회화-통제 접근방식을 강조한 Reckless(1956)는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인하여 자아통제력이 발전되며 비행으로 기우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Reckless와 그의 동료들(1956, 1957)에 의해 체계화된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에 잘 반영되어있다. 봉쇄이론은 이전의 통제이론(control theory)의 변형된 형태로 일탈행위에 대한 외적인 봉쇄요인에 대한 기존의 설명에 내적인 봉쇄의 핵심메커니즘으로 자아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봉쇄이론은 상호작용의 과정보다는 심리적인 발달에 보다 관심을 가지며, 또한 억제와 자기규제 습득에 필수적인 사회화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행동의 동기화 보다는 행동의 억제의 측면에 분석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사회화-통제 접

근방식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에 있어서 개인의 발달론적 측면 특히 자아통제력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한 개인의 발달'을 강조하게 되었다. 발달론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자아개념은 개인수준의 현상과 사회적 수준의 현상을 중재하는 변인이라기 보다는 인성변인(personality variable)과 같이 취급되었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 접근방식의 시초라 할 수 있는 Lemert(1951)의 연구에서는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에 출두하고 시설에 수용되고 난 이후의 결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그러한 조치로 인하여 개인은 낙인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낙인은 자신이 비행자라는 사실을 수용하게 만들어서 자아개념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론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년사법체계와의 접촉은 청소년의 사고방식에 비행적인 자아개념을 정착시키게 된다고 보았다(Levy, 1997). Lemert(1951)의 주장은 일탈의 원인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대신에 일탈행동과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낙인찍고 통제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반응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회적 체계가 일탈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차적 일탈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분석의 초점을 최초일탈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서 일탈의 체계화(조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일탈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탈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결국 자아개념은 일탈의 동기화 기능과 일탈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일탈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적 상호작용론적 접근방식 뿐만 아니라 이차적 일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자아개념을 강조하는 낙인론적 관점 역시 동기화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을 볼 수 있으며, 사회화-통제론적 접근방식은 자아의 통제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동기화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은 부정적 자아개념이 일탈을 유발하고, 통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은 긍정적 자아개념이 일탈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개념의 동기화 기능과 통제기능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호밀접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아개념의 복잡성 그리고 자아개념과 일탈과의 관계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데, 한가지 차원은 비행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정도가 일반 청소년들보다 낮은가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한 차원은 자아개념이 비행의 원인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2호, 2006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비행청소년들의 자아개념 수준이 일반 청소년들의 자아개념보다 낮다는 연구결과(Evans, Levy, Sllenerger, & Vyas, 1991; Lau & Leng, 1992; Levy, 1997a, 1997b; Rose, Glaser, & Roth, 1998; 윤진, 장근영, 박윤창, 김도환, 1997)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이미 비행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아직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비교연구라는 점에서 비행행위참여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자아개념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서 자아개념의 중요성과 이론적 타당성이나 명백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낮은 자아개념이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Kaplan, 1975; Kaplan, Johnson, & Bailey, 1986; Leung & Drasgow, 1986; rosenberg & Rosenberg, 1975; 윤진 외 3인, 1997)가 일반적이지만 자아개념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가 자아개념의 차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하연 외 2인, 1991; 이은주, 2000).

## 2. 유해업소의 개관

## 1) 유해업소의 개념과 종류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인격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문화적·심리적 요소들과 청소년과 주변 환경요인 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즉, 영향과 반응관계의 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및 구조적 요소들로서 상호작용 하는 사물, 외부적 기대와 압력, 상황, 조건 등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이때 유해환경의 존재 형태는 매체, 장소 혹은 기회나 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마홍철, 2001).

유해환경은 크게 물리적 유해환경과 사회심리적 유해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적 환경이란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연적, 물질적 환경을 포함한다. 사회심리적 환경이란 비가시적이고 비유형적인 환경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회제도나 구조, 또한 사회의 가치관, 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규정, 기성세대의 행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분류방식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해환경과 관련한 정부정책 수립 시에는 주로 1) 유해업소, 약물과 물건 등의 물리적 사회환경과, 2) 방송·영화·만화·잡지·컴퓨터 등의 매체물에 의한 정보적 유해환경을 지칭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되는

매체, 약물과 물건, 업소 등 세 영역 즉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를 유해환경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규제하고 있다(박성혁, 2000).

이 중 청소년 유해업소란 문제 청소년들과 어울리거나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업소로서,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와, 그 자체로서는 유해업소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포함한다(김창우, 2003).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란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 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과,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여흥접객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하며 또한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고용 금지업소(출입은 가능)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또는 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및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서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동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을 말하고 있다(김창우, 2003).

또한 박성혁(2000)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규제가 약한 유해업소(오락성 유해업소), 규제가 강한 유해업소(성인용 유해업소)로 구분하였다. 즉, 오락성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을, 성인용 유해업소는 술집, 단란주점 및 룸싸롱, 나이트클럽(디스코장), 윤락가, 전화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가시적이고 유형적 속성을 지니는 물리적 사회 환경 중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김창우(2003), 청소년보호법, 박성혁(2000)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모두 비슷하게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큰 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성혁(2000)의 분류를 토대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오락성 유해업소와 성인용 유해업소로 구분하고자 한다.

## 2. 유해업소 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Lewin의 장이론(Field theory)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으로, 그 환경에 속해있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 간의 상호의존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Lewin, 1942). 다시 말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행위를 동기화시키는데 있어서 두 가지 결정적인 축은 개인과 환경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의미하고, 「개인」에 속하는 변인들은 직접 관찰 가능한 특성은 물론이고 심리적 특성, 태도, 가치관, 신념, 인식 등을 포괄한다. 이들 요인들의 중요성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접촉을 중단하거나 절제하는 이유에서도 나타난다.

유해업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돈이 많은 청소년들이 돈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쉽게 유해환경을 접촉하고 이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유해환경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용돈 규모가 늘어났을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결국 가정의 경제수준은 각종 오락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나 또래들이 청소년에 대해 거는 기대와 요구, 그리고 이들이 청소년에게 보이는 행동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그 종류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8세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보다는, 10세 아동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부모들은 더욱 놀라고 심하게 제재할 것이다.

청소년의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부모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부모가 자녀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청소년이 느끼는 것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대화가 단절되면 청소년은 더욱 공격적 비행을 보인다고 한다(Baumrind, 1991).

한편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행태와 직결된 요인들을 유인요인(pull factors)과 방출요인(push factors)으로 이원화시키기도 하는데, 유인요인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유해성 공급의 측면을 말하며, 방출요인은 유해성을 필요로 하는 수요의 측면을 의미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유인요인이라 함은 유해업소에의 접근가능성으로서,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학교 가까이에 유해업소가 있는 지리적 근접성은 그 접촉기회를 증가시켜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 반응을 생성하고 유해업소 출입의 가능성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방출요인은 청소년을 건전사회에서 유해영역으로 내쫓는 요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가정, 학교, 또래집단과 같은 영역에서의 부적응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는 청소년이 유해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는 사회통제 요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억제

력을 갖는 일종의 '사회기관'으로서(Erickson, 1973), 가족구조상의 문제점이나 가족유대의 약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생활에 대한 소외의식을 심화시키고 가정 밖으로 뛰쳐 나가는 이탈심리를 자극하게 된다. 결손가정에서 비행청소년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가정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에 애착이 크며 학업능력이 뛰어나 학교활동에 적극적인 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김준호, 1996), 이는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하거나 학교 교사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로 인한 긴장이나 불만을 다른 곳에서 해소하려 하게 되는데 유해업소와 같은 물리적 유해환경과 가족, 학교, 친구 등 사회·심리적 유해환경이 복합 작용하여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정음(2002)은 수원시 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출입경험을 조사했는데, 유해업소를 한번 이상 출입한 경험은 PC방(99.6%), 노래방(98.9%), 게임장(98.1%), 커피숍(76.3%), 호프집/소주방(63.2%), 비디오방(34.6%), 여관(33.1%), 단란주점(23.2%), 나이트클럽(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호프집/소주방, 비디오방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인문고 보다는 실업고가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별 유해성 인식에 있어서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PC방, 게임방, 노래방, 커피숍 등에 대해서는 유해성과 관계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들에 대해서도 유해하지 않다는 응답을 많이 했는데 비디오방은 57.9%, 호프집/소주방은 48.8%, 단란주점은 28.6%, 나이트클럽은 44.7%, 여관은 46.1%의 응답자들이 유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강효(2000)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오락실 89.9%, 노래방 89.2%, PC방 85.4%, 비디오 가게 81.4%, 영화관 69.7%, 만화가게 58.5%의 순으로 출입경험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학생은 PC방, 오락실, 비디오 가게 순으로 출입경험이 많은데 반해 여학생은 노래방, 오락실, 비디오 가게 순으로 출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높을수록 모든 유해업소의 출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출입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소비자의 자아개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 소비자의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청소년 소비자의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통계적 특성, 자아개념)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5.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교 및 남녀의 비율이 고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반포본동의 S여고, 상계10동의 O중학교, 대전의 S중학교와 S고등학교, 인천의 Y고등학교, 경기도 고양시의 B고등학교 등을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부실기재된 193부를 제외하고 총 100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조사도구

### 1) 유해업소에 대한 척도

유해업소에 대한 척도는 박성혁(2000), 김문조와 윤옥경(2001), 도미향(2002)의 연구를 근거로 모두 10개의 유해업소를 추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 당구장, 락카페, 호프/소주방, 디스코텍 등과 같이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곳을 성인용 유해업소, 2) 만화방, 전자오락실,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유해업소로 분류되고 있지 않지만 그 곳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오락성 유해업소로 구분할 수 있다(김문조, 윤옥경,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개별 유해업소출입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하여 출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래방, PC방, 만화방, 커피숍, 전자오락실, 락카페를 오락성 유해업소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당구장, 비디오방, 디스코텍, 호프집/소주방을 성인용 유해업소로 분류하였다. 이들 유해업소의 출입평가는 각 유해업소의 출입에 대해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그저 그렇다”, “별로 나쁘지 않다”, “전혀 나쁘지 않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유해업소출입 경험은 지난 한 학기동안 출입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 2) 자아개념에 대한 척도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개념, 즉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식이라

고 할 수 있다(이동원,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김영길, 1967; 심웅철, 최광현, 1986; 윤진, 장근영, 박윤창, 김도환, 1997)를 기초로 하여 모두 22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사용하였고, 자아개념의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t-test,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유해업소출입평가와 경험에 따라 분류된 청소년 소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chi^2$ 와 분산분석 및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이 38.4%, 여학생이 61.6%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게 포함되었고, 중학생이 37.5%, 고등학생이 6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0%정도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과 비취업인 상태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가계경제수준의 결과는 상상(上) 또는 상하(上下)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8.2%, 하상(下上) 또는 하하(下下)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10.1%, 그리고 81.6%의 응답자가 중상(中上) 또는 중하(中下)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7)

| 변 인          | 빈도(%) / 평균(SD)    |
|--------------|-------------------|
| 성 별          | 남 385(38.4)       |
|              | 녀 617(61.6)       |
| 학 년          | 중 학 생 378(37.5)   |
|              | 고 등 학 생 629(62.5) |
| 부모와의 동거여부    | 동 거 906(90.0)     |
|              | 비 동 거 94( 9.4)    |
| 모의 취업여부      | 취 업 508(50.2)     |
|              | 비 취 업 506(49.8)   |
| 경 제 수 준      | 상 상 22( 2.3)      |
|              | 상 하 57( 5.9)      |
|              | 중 상 451(47.0)     |
|              | 중 하 332(34.6)     |
|              | 하 상 71( 7.4)      |
| 하 하 26( 2.7) |                   |
| 종 교          | 유 396(39.7)       |
|              | 무 602(60.3)       |

\*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어 합계가 상이하게 나타남.

## IV. 연구결과

### 1. 청소년 소비자의 자아개념

청소년 소비자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22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분석은 아이겐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였고, 직교회전(varimax)방식에 의해 회전시킨 결과 모두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모두 0.7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인 품성자아는 자신의 전반적인 품성과 관련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두 번째 요인인 사회자아는 청소년 소비자들의 사회생활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로 모두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요인인 성취자아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평가로 모두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네 번째 요인인 학업자아는 현재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로 모두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가정자아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 및 자신이 소속된 가정에 대한 평가로 모두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자아개념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학업자아 3.45, 품성자아 2.59, 성취자아 2.55, 사회자아 2.53, 가정자아 2.16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자아가 가장 높은 값으로, 가정자아가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 2. 인구통계적 요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은데, 성별,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 모의 취업여부, 경제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품성자아, 성취자아, 학업자아의 경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성자아, 성취자아, 가정자아의 경우는 중학생이 더 높은 반면 학업자아는 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정자아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아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유해업소 출입평가 및 출입경험

청소년 소비자의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유해업소 출입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오락성 유해업소의 경우 평균 3.74점으로 출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방이 4.20점으로 상당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용 유해업소의 출입평가의 경우 평균 2.62점으로 나타났고 호프집/소주방이 2.14점으로 이러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아개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 요인       | 문항                              | 평균(SD)     |           | 요인 적재치 | 아이겐값 | 분산변량  | Cronbach's $\alpha$ |
|----------|---------------------------------|------------|-----------|--------|------|-------|---------------------|
| 품성<br>자아 | 21. 나는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53(1.09) | 2.59(.86) | 0.73   | 3.39 | 14.10 | .82                 |
|          | 5. 나는 대체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79(1.03) |           | 0.70   |      |       |                     |
|          | 20. 나는 나 자신을 믿음만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 2.46(1.15) |           | 0.70   |      |       |                     |
|          | 6. 나는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 2.61(1.00) |           | 0.68   |      |       |                     |
|          | 13. 나는 학교생활에 매우 자신이 있다          | 2.72(1.03) |           | 0.75   |      |       |                     |
| 사회<br>자아 | 14.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 2.44(1.01) | 2.53(.75) | 0.75   | 3.25 | 13.53 | .81                 |
|          | 12.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           | 1.91(0.94) |           | 0.74   |      |       |                     |
|          | 11. 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 2.55(1.02) |           | 0.70   |      |       |                     |
|          | 10.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2.83(1.18) |           | 0.59   |      |       |                     |
|          | 22. 나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 2.77(1.13) |           | 0.45   |      |       |                     |
|          | 3. 나는 지금보다도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 2.12(1.03) |           | 0.79   |      |       |                     |
| 성취<br>자아 | 1.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2.26(1.06) | 2.55(.85) | 0.70   | 3.02 | 12.60 | .84                 |
|          | 2.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              | 2.88(1.13) |           | 0.64   |      |       |                     |
|          | 7.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해낼 자신이 있다     | 2.66(1.07) |           | 0.52   |      |       |                     |
|          | 18. 나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한다 | 3.55(1.18) |           | 0.82   |      |       |                     |
| 학업<br>자아 | 17. 나는 나의 학교 공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 3.33(1.15) | 3.45(.97) | 0.72   | 2.65 | 11.04 | .77                 |
|          | 8. 나는 공부를 잘 한다                  | 3.47(1.13) |           | 0.67   |      |       |                     |
|          | 9. 나는 우리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 2.11(1.17) |           | 0.82   |      |       |                     |
| 가정<br>자아 | 15.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 1.93(1.11) | 2.16(.86) | 0.80   | 2.40 | 10.00 | .73                 |
|          | 19.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산다              | 2.30(1.20) |           | 0.66   |      |       |                     |
|          | 18. 나는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 2.34(1.17) |           | 0.58   |      |       |                     |

\* record 된 항목임.

〈표 3〉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자아개념

|                         | 품성자아          | 사회자아        | 성취자아          | 학업자아        | 가정자아        |
|-------------------------|---------------|-------------|---------------|-------------|-------------|
|                         | B(β)          | B(β)        | B(β)          | B(β)        | B(β)        |
| 상수                      | 2.621***      | 2.45***     | 3.397***      | 1.84***     | 2.62***     |
| 성별 <sup>1)</sup>        | .24(.14)***   | -.02(-.01)  | .20(.11)***   | .08(.04)**  | -.07(-.04)  |
| 학년 <sup>1)</sup>        | -.16(-.092)** | .01(.01)    | -.18(-.11)*** | .17(.09)**  | .18(-.10)** |
| 부모와의 동거여부 <sup>1)</sup> | -.05(-.02)    | -0.12(-.04) | -.04(-.02)    | .02(.00)    | .33(-.10)** |
| 모의 취업여부 <sup>1)</sup>   | -.06(-.03)    | -.15(.05)** | -.01(-.01)    | .10(.05)    | .00(00)     |
| 경제수준 <sup>1)</sup>      | .06(.072)*    | .01(.11)**  | .13(.13)***   | .17(.14)*** | .18(.18)*** |
| 종교유무 <sup>1)</sup>      | -.02(-.01)    | -.02(-.02)  | .02(.01)      | -.04(-.03)  | .00(00)     |
| Adj R <sup>2</sup>      | .036          | .035        | .062          | .054        | .062        |
| F값                      | 4.056***      | 3.935***    | 7.225***      | 6.161***    | 7.120***    |

\*p<.05, \*\*p<.005, \*\*\*p<.001

<sup>1)</sup> 남자=0, 여자=1/중학생=0, 고등학생=1/부모와 비동거=0, 부모와 동거=1/모의 비취업=0, 모의 취업=1/종교 유=1, 종교 무=0/경제수준 하하=1, 하상=2, 중하=3, 중상=4, 상하=5, 상상=6으로 처리함.

〈표 4〉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정도의 결과

| 유 해 업 소  |         | 출 입 평 가 <sup>1)</sup> |      |               | 출 입 경 험 |      |     |     |               |
|----------|---------|-----------------------|------|---------------|---------|------|-----|-----|---------------|
|          |         | 평 균                   | S.D. | paired t-test | 평 균     | S.D. | min | max | paired t-test |
| 오락성 유해업소 | 노래방     | 4.20                  | .99  | 46.19***      | 3.59    | 1.88 | 0   | 12  | 42.50***      |
|          | PC방     | 3.85                  | .06  |               | 3.27    | 2.01 | 0   | 13  |               |
|          | 만화방     | 3.71                  | 1.02 |               | 2.36    | 1.91 | 0   | 11  |               |
|          | 커피숍     | 3.68                  | 1.15 |               | 1.87    | 1.41 | 0   | 9   |               |
|          | 전자오락실   | 3.59                  | 1.08 |               | 2.76    | 1.87 | 0   | 10  |               |
| 락카페      | 3.41    | 1.19                  | 1.14 |               | 0.65    | 0    | 5   |     |               |
| 합 계      | 3.74    | .80                   | 2.49 |               | 1.02    | -    |     |     |               |
| 성인용 유해업소 | 당구장     | 2.98                  | 1.26 |               | 1.66    | 1.34 | 0   | 9   |               |
|          | 비디오방    | 2.86                  | 1.29 |               | 1.24    | .88  | 0   | 9   |               |
|          | 디스코텍    | 2.51                  | 1.22 |               | 1.08    | .47  | 0   | 7   |               |
|          | 호프집/소주방 | 2.14                  | 1.28 | 1.50          | 1.24    | 0    | 9   |     |               |
|          | 합 계     | 2.62                  | .99  | 1.36          | .71     | -    |     |     |               |

\*p<.05, \*\*p<.005, \*\*\*p<.001

<sup>1)</sup> 유해업소의 출입평가는 1="매우 나쁘다", 2="약간 나쁘다", 3="그저 그렇다", 4="별로 나쁘지 않다", 5="전혀 나쁘지 않다"로 구성.

다. 또한 오락성 유해업소와 성인용 유해업소의 출입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오락성 유해업소의 경우 평균 2.49회였으며 노래방의 출입횟수가 가장 많았고, 락카페와 커피숍의 출입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유해업소의 경우 평균 1.36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스코텍의 출입경험이 가장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경험 또한 출입평가와 마찬가지로 오락성 유해업소와 성인용 유해업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이 유해업소 출입평가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오락성 유해업소와 성인용 유해업소 모두 출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과 사회자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그리고 사회자아의 점수가 낮을수록 유해업소 출입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락성 유해업소와는 다르게 성인용 유해업소의 출입평가의 경우 성별과 가정자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가정자아의 점수가 낮을수록 성인용 유해업소 출입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 그리고 유해업소 출입평가가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오락성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표 5〉 관련변수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의 유해업소출입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독립변수               |                         | 오락성 유해업소      | 성인용 유해업소      |
|--------------------|-------------------------|---------------|---------------|
|                    |                         | B(β)          | B(β)          |
| 개인<br>요인           | Constant                | 4.13***       | 3.085***      |
|                    | 성별 <sup>1)</sup>        | .03(.02)      | -.22(-.12)*** |
|                    | 학년 <sup>1)</sup>        | .23(.14)***   | .40(.20)***   |
|                    | 부모님과 동거여부 <sup>1)</sup> | -.17(-.06)    | -.15(-.06)    |
|                    | 모의 취업여부 <sup>1)</sup>   | .02(.02)      | .06(.03)      |
|                    | 경제수준 <sup>1)</sup>      | -.02(-.03)    | .02(.02)      |
| 자아<br>개념           | 종교 <sup>1)</sup>        | .04(.03)      | -.01(-.01)    |
|                    | 신체자아                    | .03(.03)      | .05(.04)      |
|                    | 사회자아                    | -.27(-.24)*** | -.25(-.20)*** |
|                    | 성취자아                    | .02(.02)      | -.05(-.06)    |
|                    | 학업자아                    | .07(.08)      | .02(.01)      |
|                    | 가정자아                    | -.01(.01)     | -.11(.10)**   |
| Adj R <sup>2</sup> |                         | .071          | .10           |
| F값                 |                         | 4.89***       | 6.75***       |

\*p<.05, \*\*p<.005, \*\*\*p<.001

<sup>1)</sup> 남자=0, 여자=1/중학생=0, 고등학생=1/부모와 비동거=0, 부모와 동거=1/모의 비취업=0, 모의 취업=1/종교 有=1, 종교 無=0/경제수준 하하=1, 하상=2, 중하=3, 중상=4, 상하=5, 상상=6으로 처리함.

〈표 6〉 관련변수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의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독립변수               |                         | 오락성 유해업소      | 성인용 유해업소      |
|--------------------|-------------------------|---------------|---------------|
|                    |                         | B(β)          | B(β)          |
| 개인<br>요인           | Constant                | 2.90***       | 1.57***       |
|                    | 성별 <sup>1)</sup>        | -.36(-.20)*** | -.20(-.14)*** |
|                    | 학년 <sup>1)</sup>        | .04(.02)      | .19(.13)***   |
|                    | 부모님과 동거여부 <sup>1)</sup> | -.29(-.10)*   | -.13(-.05)    |
|                    | 모의 취업여부 <sup>1)</sup>   | .06(.02)      | .03(.02)      |
|                    | 경제수준 <sup>1)</sup>      | -.03(-.01)    | 0(0)          |
| 자아<br>개념           | 종교 <sup>1)</sup>        | .01(.01)      | -.01(-.01)    |
|                    | 신체자아                    | -.01(-.01)    | -.06(-.07)    |
|                    | 사회자아                    | -.28(-.21)*** | -.14(-.15)*** |
|                    | 성취자아                    | .06(.04)      | .05(.07)      |
|                    | 학업자아                    | .05(.04)      | 0(0)          |
|                    | 가정자아                    | -.13(-.10)**  | -.12(-.16)*** |
| 평가                 | 오락성 유해업소                | .46(.42)***   |               |
|                    | 성인용 유해업소                |               | .33(.41)***   |
| F값                 |                         | 5.54***       | 6.450***      |
| Adj R <sup>2</sup> |                         | .24           | .26           |

\*p<.05, \*\*p<.005, \*\*\*p<.001

<sup>1)</sup> 남자=0, 여자=1/중학생=0, 고등학생=1/부모와 비동거=0, 부모와 동거=1/모의 비취업=0, 모의 취업=1/종교 有=1, 종교 無=0/경제수준 하하=1, 하상=2, 중하=3, 중상=4, 상하=5, 상상=6으로 처리함.

부모와의 동거여부, 사회자아, 가정자아이며 오락성유해업소 출입평가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 오락성 유해업소의 출입경험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아, 가정자아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출입경험 또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락성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출입경험으로 또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학년, 사회자아, 가정자아이며 오락성 유해업소 출입경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인용 유해업소 출입평가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사회자아와 가정자아 값이 낮을수록 성인용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유해업소 출입평가가 긍정일수록 출입경험 또한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유해업소의 평가와 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 그리고 사회자아와 가정자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유해업소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경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그 또래집단에 유해업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험 또한 빈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 평가와 경험 모두에서 유해업소에 접근하기 쉬운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학년별, 성별별로 교육의 접근방법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개념 중 사회자아와 가정자아가 유해업소 평가와 출입경험에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기존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출입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대한 태도가 곧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출입에 대한 태도를 처음에는 호기심 또는 또래집단의 문화와 같은 요인에 의해 긍정적으로 형성할 경우, 이러한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 방출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청소년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과 같은 측면에서의 교육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5. 유해업소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따라 분류된 청소년 소비자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의 차이

청소년 소비자의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여부에 따라 청소년 소비자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평가와 출입경험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위 25% 집단을 출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 출입빈도

〈표 7〉 유해업소평가와 경험에 따라 분류된 청소년 소비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개념의 차이

|                 |                   | 성 별 |          | 학 년  |          | 동거여부 |        | 모의취업 여부 |      | 종 교 |        | 경제 수준 | 신체 자아 | 사회자아     | 성취 자아   | 학업자아     | 가정자아    |
|-----------------|-------------------|-----|----------|------|----------|------|--------|---------|------|-----|--------|-------|-------|----------|---------|----------|---------|
|                 |                   | 남   | 녀        | 중 학생 | 고등 학생    | 동거   | 비 동거   |         |      |     |        |       |       |          |         |          |         |
| 오락성<br>유해<br>업소 | I                 | 52  | 85       | 56   | 82       | 12   | 125    | 70      | 68   | 82  | 54     | 3.37  | 2.60  | 2.63(a)  | 2.40    | 3.16(a)  | 2.06(a) |
|                 | II                | 19  | 19       | 23   | 16       | 2    | 36     | 17      | 21   | 27  | 11     | 3.21  | 2.76  | 2.39(ab) | 2.60    | 3.52(ab) | 2.36(b) |
|                 | III               | 6   | 32       | 12   | 26       | 4    | 34     | 24      | 14   | 30  | 8      | 3.36  | 2.84  | 2.78(a)  | 2.81    | 3.90(b)  | 2.06(a) |
|                 | IV                | 64  | 47       | 39   | 72       | 14   | 97     | 44      | 67   | 59  | 52     | 3.50  | 2.60  | 2.31(b)  | 2.50    | 3.36(a)  | 2.34(b) |
|                 | X <sup>2</sup> /F |     | 23.29*** |      | 8.91**   |      | 2.05   |         | 7.17 |     | 9.68** |       | .86   | .99      | 4.83**  | 2.15     | 5.55*** |
| 성인용<br>유해<br>업소 | I                 | 67  | 110      | 103  | 74       | 11   | 165    | 93      | 84   | 104 | 72     | 3.40  | 2.77  | 2.71(a)  | 2361    | 3.42     | 2.18    |
|                 | II                | 5   | 11       | 4    | 13       | 2    | 15     | 7       | 10   | 14  | 3      | 3.86  | 2.85  | 2.54(ab) | 2.57    | 3.39     | 2.58    |
|                 | III               | 19  | 39       | 26   | 32       | 5    | 53     | 26      | 32   | 36  | 22     | 3.53  | 2.74  | 2.48(ab) | 2.45    | 3.37     | 2.19    |
|                 | IV                | 65  | 84       | 30   | 119      | 23   | 124    | 69      | 80   | 89  | 60     | 3.59  | 2.58  | 2.34(b)  | 2.42    | 3.37     | 2.31    |
|                 | X <sup>2</sup> /F |     | 2.791    |      | 51.06*** |      | 7.88** |         | 2.12 |     | 3.638  |       | 1.71  | 1.37     | 6.27*** | 1.21     | .08     |

\*p&lt;.05, \*\*p&lt;.005, \*\*\*p&lt;.001

1) 경제수준 하하=1, 하상=2, 중하=3, 중상=4, 상하=5, 상상=6으로 처리함.

가 낮은 집단으로 그리고 상위 75%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 출입빈도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분류의 결과에 따라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경험이 없는 유형을 I집단,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출입한 경험이 있는 유형을 II집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험이 없는 유형을 III집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험이 있는 유형을 IV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집단간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은데, 각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오락성 유해업소의 경우 성별, 학년, 종교유무, 사회자아, 학업자아, 가정자아이며 성인용 유해업소의 경우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 사회자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오락성 유해업소의 각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험이 없는 유형인 III집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자아값도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용 유해업소의 경우 역시 III집단이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하는 것이 청소년 소비자를 유해업소로 방출시키는 것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소비자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하위 영역을 살펴본 후, 이러한 자아개념과 인구통계적 특성이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유해업소출입에 대한 평가와 경험에 따라 청소년 집단을 4개의 집단(부정적 평가를 하고 경험이 없는 유형을 I집단,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출입한 경험이 있는 유형을 II집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경험이 없는 유형을

III집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험이 있는 유형을 IV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들 집단간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소비자의 자아개념은 품성자아, 사회자아, 성취자아, 학업자아, 가정자아 이상 모두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고 각 차원의 평균값은 학업자아 3.45, 품성자아 2.59, 성취자아 2.55, 사회자아 2.53, 가정자아 2.16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자아가 가장 높게, 가정자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 경제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출입평가의 경우 노래방이 4.20점으로 10개의 유해업소 중 출입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호프집/소주방의 출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대한 결과는 노래방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 전자오락실, 만화방등의 순으로 출입에 대해 경험이 많았고, 디스코텍의 출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해업소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출입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년, 사회자아와 가정자아였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그리고 사회자아와 가정자아의 값이 낮을수록 유해업소출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년, 부모와의 동거여부, 사회자아, 가정자아이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집단이 출입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로 나타났으며 사회자아와 가정자아 값이 낮을수록 출입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에 상대적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은 출입평가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소비자의 유해업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경험의 빈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업소의 출입에 대한 평가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개념 중 사회자아와 가정자아이며 사회자아와 가정자아의 점수가 낮을수록 유해업소 출입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출입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주된 사회생활의 장소가 학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에 자신이 있고 학교생활이 즐거울수록 유해업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될 뿐 아니라 경험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유해업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 되고 경험정도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족원과의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 유해업소 출입평가가 긍정적이며 출입경험 또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자아의 경우 청소년 자아개념 측정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유해업소로 청소년 소비자들을 방출시킬 수 있는 학교, 또래집단과의 부적응, 그리고 가족원들간의 불화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소비자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과 교우생활의 부적응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되어지며 이와 더불어 가족원들 간의 유대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유해업소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유해업소에 출입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출입경험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소비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경우 이러한 태도가 곧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 방출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검이 필요하며 청소년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과 같은 측면에서의 교육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비자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태도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노

래방과 PC방 같은 유해업소의 출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입경험 또한 상당수가 이미 노래방과 PC방 같은 유해업소를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업소의 경우 무조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보다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이러한 업소에서 건전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업소의 유해성을 제거하고 장점만을 추출하여 건전한 여가장소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성별의 경우 오락성 유해업소의 출입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성인용 유해업소의 경우 남학생의 출입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입경험의 결과에서는 오락성 유해업소의 출입에는 학년이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성인용 유해업소의 경우 고등학생의 출입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별과 학년에 따라 출입평가와 출입경험에 대한 결과가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각 학년과 성별에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출입에 대한 평가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통계적 특성과 자아개념에 대해 살펴봐왔는데, 이러한 요인 이외에 유해업소 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 즉, 유해업소에 접근하기 쉬운 지리적인 특성, 사회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제도적 법적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여가문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해업소들의 출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 업소를 출입하게 되는가와 같은 동기와 업소출입 결과 만족여부 등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경험세계와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김문조, 윤옥경(2001).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 비행: 분석과 대응. 청소년학연구, 8(1), 99-116.
- 김석훈(1998). 고등학생들의 여가활동관련 주요요인별 여가만족도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길(1967). 정상소년 집단과 비행소년 집단에 대한 자아개념의 비교연구. 교육학연구, 5(1), 17-38.
- 김준호(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창우(2003).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청소년교육에 미치

- 는 영향 평가.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연, 오경자, 윤 진(1991). 청소년 자아개념 ·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및 비행간의 상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35-52
- 도미향(2002).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4(2), 157-169.
- 마홍철(2001).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혁(2000). 청소년유해업소의 실태와 청소년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심용철, 최광현(1996).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8, 101-128.
- 윤 진, 장근영, 박운창, 김도환(1997). 비행개입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92-115
- 이강효(2000). 청소년 유해환경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원(2005). 청소년 자아개념과 비행 -자아개념의 제 차원과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3-17.
- 이은주(2000).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7(1), 58-81.
- 주정음(2002). 수원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보호위원회(1999).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 <http://youth.go.kr>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문제론*. 서원출판사.
- 한상철(1998). *청소년학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Baumrind, D. C.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t*, 11, 56-95.
- Cohen, A. (1995). *Delinquent Boys*. Glencoe, IL: The Free Press.
- Erickson, M. L. (1973). Group violation and official delinquency; The group hazard hypothesis. *Criminology*, 11(2).
- Evans, R. C., Levy, L., Sllenvenger, T., & Vyas, A. (1991).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The ongoing debate.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4, 59-74
- Hindelang, M. (1973). *Cause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20.
- Kaplan, H. (1975). Increase in self rejection as an antecedent of deviant respon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281-277.
- Kaplan, H., Johnson, R., & bailey, C. (1986). Self-rejection and the explanation of deviance. *Social psychology Quartely*, 29, 110-128.
- Lau, S., & Leung, K. (1992). Relations with parents and school and Chinese adolescents' self concept, Delinqu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2), 193-202.
-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Leung, K., & Drasgow, F. (1986).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in three ethnic grou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151-167.
- Levy, K. St (1997). Multifactional self-concept and deliquency in Australian Adolesc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 277-283.
- Levy, K. St (1997). The contribution og self-concept in the ethiology of adolescent delinquency. *Adolescence*, 32, 671-686.
- Lewin, K. (1942). *Field theory and learning*.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Reckless, W. G., Dinitz, S., & Murray, E. (1956). Self concept as an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44-746.
- Rose, C., Glaser, B., & Roth, E. (1998). Elevation and deflation in self-concept level among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27, 107-122.
- Rosenberg, R., & Rosenberg, M. (1978). Self 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 279-291.
-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cons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1), 3-17.
- Wells, E. (1978). Theories of deviance and the self concept. *Social psychology*, 41, 189-204.
- Wells, E., & Rankin, J. (1983). Self concept as a mediation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11-22

(2005년 8월 12일 접수, 2005년 11월 22일 채택)